

술별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 구성 후 5~6회에 걸친 중점기술별 회의를 통해 시장·기술·IPR·표준화 현황 분석, 중점표준화항목 도출, SWOT 분석, 각 중점 표준화항목별 표준화전략 및 중장기 표준화 전략 수립 단계를 거쳐 최종 검토 후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초안은 ITU연구반, 전문위원회, TTA PG 등에서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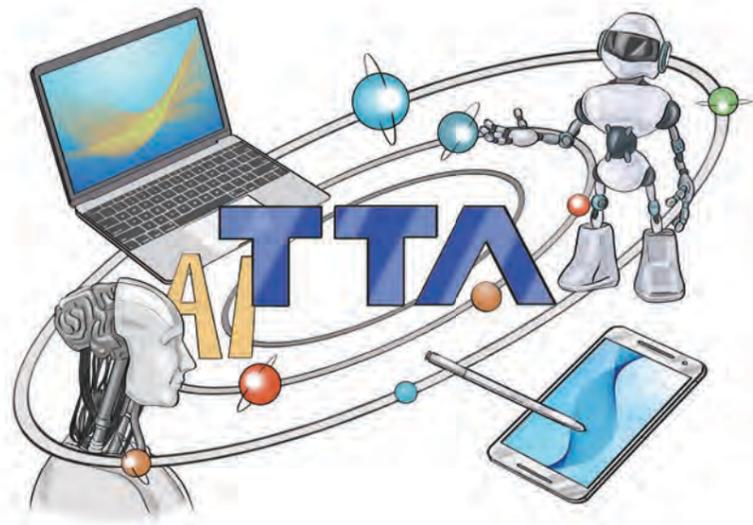
국가적 차원의 국제표준화 전략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은 2003년 최초 수립 이후 신규 표준화 항목을 발굴, 국가적 차원의 국제표준화 전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ICT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정부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과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표준화 현황과 표준 선점을 위한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산·학·연에서는 ICT 표준화 추진전략을 공유

함으로써 시장 요구사항에 맞는 표준을 적시 개발하고, 국내외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물결 속에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ICT 기술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ICT 표준화전략맵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 가능성이 높은 중점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개발한 핵심기술, ICT융합기술이 국제표준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이라는 열쇠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ICT 표준화전략맵은 국내 ICT가 좁은 울타리를 넘어 국제표준화를 향해 나가는 방향타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4. ICT 표준화포럼과 국제전문가 양성으로 글로벌 표준화 역량 강화

ICT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의 가속화로 세계 ICT는 기술 중심에서 시장 중심의 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화(De facto Standard) 활동의 중요성과 시장 표준의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실례로 3GPP·IETF·OCF 등 글로벌 포럼·컨소시엄이 현재 약 100여 개 이상 활동 중이며, 애플·알파넷·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은 자사의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고, 기업 간 연구협력과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포럼·컨소시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업체의 핵심기술력의 부재와 표준화 인력 및 예산 부족, 표준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TTA는 세계 주요 사실표준화기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인큐베이팅-표준개발-확산진흥으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의 전주기 사실표준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ICT 표준화포럼 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ICT 표준화포럼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체 시장 경쟁력 강화

2000년 10개로 시작된 포럼 지원은 2018년 현재 5G포럼, 지능정보기술포럼, IoT 포럼 등 ICT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스마트카 등 ICT 기반 융합서비스를 포함하여 35개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공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포럼을 대상으로 정책부합성과 국제표준화 가능성, 국

내표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연간표준화 성과(기고서, 표준) 기반의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포럼 중심으로 지원한다.

2014년부터는 ICT 기술 성숙도와 포럼 활동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표준화 활동을 유도코자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국내 미러포럼, 신규 시장 창출 및 조기선점을 위한 인큐베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워크숍(1998. 12. 8)



● IT Forum Korea 2001(2001. 5. 9)

● 표준화포럼 지원 성과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포럼(개)	32	38	43	45	41	38	41	34	32	36	38	36
포럼표준(건)	275	294	219	221	224	242	270	224	201	222	235	215
기고서 제출(건)	520	575	593	599	607	654	675	686	708	625	645	635
기관회원현황(개)	3,614	4,803	4,388	3,487	1,316	2,171	1,955	1,483	1,671	1,971	1,943	2,012

이팅 포럼, 표준개발 및 표준기반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표준 개발·확산포럼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IEEE802, IETF 및 W3C 등 주요 글로벌 포럼·컨소시엄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산업체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매년 600여 건 제안 및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시장요구를 반영한 포럼표준을 매년 200여 건 제정하였으며 그중 약 25% 이상이 포럼에 참여하는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되었다.

포럼표준이 제품·서비스 적용된 사례로는 ‘NFC기반의 택시 안심서비스 태그’를 꼽을 수 있다. 이 기술은 2014년과 2015년 양 해에 걸쳐 전국택시 25만 대 중 약 20%에 달하는 4만 9,000대에 적용됐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또한 2014년 이후 6,000여 개 업체에 적용돼 정보이용 약자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매년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분석서가 매년 발간되어, 사실표준화 활동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다.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제도의 탄생

ICT 선진국들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여 시장지배력을 갖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 후반 도입한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제도’를 통해 국내 ICT 표준전문가의 국제 공식·사실 표준화기구에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표준화기구에 대한 영

향력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세계 표준화와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제도는 명예전문가 선정, 인큐베이팅 전문가 제도, 사실표준화의 중요도 부각에 따른 사실표준화기구 지원, 중소·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소속 전문가 우선 지원, 미래 성장동력 분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TTA는 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 제도를 통해 쟁점기술 확보가 미약한 산업체에 국제표준 기술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핵심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달성이라는 방향성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ITU 의장단의 경우, 국가별 점유율 면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TTA의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육성·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의장단 확보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5. GSC, CJK 협력 기반 구축과 3GPP, oneM2M 공동 설립으로 국제 표준화 선도

표준 기술의 선점이 글로벌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국제 표준화 활동은 ICT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TTA는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 단체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글로벌 표준화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 시장 선점, 국내 기술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도 국제 표준화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SC 협력기반 구축

세계표준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는, 1988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9차 CCITT(현 ITU-T)에서 지역 간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유럽, 미국, 일본이 모여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회의(ITSC)를 결성하게 되면서 지역 간 협의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92년 한국, 호주, 캐나다의 참여로 지금의 세계표준협력회의(GSC)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2005년 중국의 참여로 GSC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GSC는 세계 각국, 각 지역의 표준화 기관 간 협의체로서 특정 기술에 국한된 논의가 아닌 다양한 기술 현안과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는 공유와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사물통신(M2M)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oneM2M 결성을 최초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GSC를 통해서였다. GSC 참여기관들을 독려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대표로 나서 준비위원회 공동의장단에 진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oneM2M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에

서는 12개 표준화 기구가 참여하여,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ICT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한 표준화 활동 현황과 협력 강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TTA는 여전히 ICT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슈들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

CJK 협력기반 구축과 국제 표준화 공동 대응

2002년 설립된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 IT Standards Meeting)는 한중일 민간 표준화 기관 간 주요 정보통신 분야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지역·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TTA 주도로 설립되었다. 현재 한중일 4개 민간 표준화기관 기관장, IMT·무선전력전송·정보보호 실무반 표준전문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표준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국제표준화에 공동 대응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 분야의 논의와 협력뿐만 아니라 표준화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기관 차원의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신기술 분야에 대한 3국의 ICT 정책 및 표준화 활동의 협력 강